

“공도 공하다” 반야 공관 해설

대지도론 (하)

글쓴이



김성철 (중앙승가대 강사)

는 것과 같다. (대지도론)에서는 선정(禪定)은 물론이고 보시와 지계 등의 다른 수행은 하지 않고 공심만 추구하는 수행자를 사견인(邪見人)이라고 부르며 혹독하게 비판한다. 이들은 비록 입으로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말하지만, 상황

경전 속의 禪 사상

17

6바라밀 외면 공성 추구 '사견인' 보시·지계·인욕 선수행의 복덕문

다치면 욕심도 내고 화도 내며 교만하고 어리석다. 공을 말하기는 해도 공도 역시 공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리고 단지 분별심과 사된 마음으로 공의 상(相)을 취하여 회론(戲論)을 벌인다. 진정한 공성이란 보시와 지계와 선정 등의 수행을 쌓아 그 마음이 유연해지고 번뇌가 희박해진 후 터득되는 것으로 이런 공성을 직관한 보살은 공의 상(相)을 취해 회론을

벌이지도 않고,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욕심이나 화를 내지 않으며, 공도 역시 공하다는 공공삼매(空空三昧)에 대한 조망 역시 갖추고 있다. (대지도론)에서는 공성에 대한 지혜만 추구하는 사견인(邪見人)을 다음과 같이 소금의 비유를 들어 비판한다. '소금의 존재를 모르면 어느 마음에 한 방문객이 왔는데 그는 고기와 채소와 같은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6

반야 바과 공관 해설 ⑥

“사물을 영원하거나 무상한 것이라고 기술하는 것은 실로 무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고, 단지 그 자신의 마음만이 있기 때문이다. 또 상(相)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이중성은 그릇된 분별심과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밀린다팡하) 중에서) 행복과 고통은 둘 다 비실재적이다. 고통은 '공중에 퍼지는 꽃향기' 만큼 비실재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것의 본래 모습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왜곡의 산물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철학에서는 객관적인 서술로 '고통'을 묘사해 왔다. 그 이유는 사고할 수 있고, 감수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이다.

(밀린다팡하)는 밀린다왕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모순되는 부분을 듣고, 이에 대한 나가세나 장로의 대답으로 구성됐다.

이 경전에서 밀린다왕은 왜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는 '자아'에 대해서 말하고, 다른 곳에서는 '무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게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자아도 없고 무아도 없다고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부처님은 교사라기 보다는 의사이다. 그는 항상 대화를 상대방의 정신적 혹은 지적 성숙도의 수준에 맞춰서 가르쳤다. 물질을 중시하고 거친 사람들에게는 '자아'에 관해서 말했다. 또 세련되고 아늑한 이기적이고 자아가 존재한다는 믿음에 의해서 자기 추구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음을 가르쳤다. 자신의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는 것을 약화시키고 그들 속에 열반에 대한 욕구를 일으키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고통 공중에 퍼지는 꽃향기

알반에 가까이 있고, 자아에 대한 모든 애착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아와 무아가 없다고 가르친다. 사실 자아라는 견해가 진실이 아닌 것처럼 무아라는 견해도 진실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해독제인 것이다. 백내장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머리카락이나 파리가 있는 듯이 보여도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감지되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은 바보들이 상상하는 자아·무아를 전혀 실제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다.

고통과 행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고 싶어하는 데'에 공명이 있다. 그러나 타인을 도와야 할 때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비심'은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타인을 위해서 인내된 고통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종의 정신적인 추문에만 의존해 고통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다. 사실 대부분의 철학에서 고통은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하는 '신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차가운 위안일 뿐이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대조시키는 사람은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신성한'이라는 철학의 논리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반면 부처님은 관습을 무시하고 장엄한 삶의 리듬을 위해서, 그것을 저 위에 남겨 두었던 것이다. 자유롭고 편안하며 소탈한 삶을 가르친 것이다.

따라서 나가세나 장로는 '위대한 현인은 우리에게 모든 견해를 피하도록 가르친다. 보이거나 들릴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라고 단언한다. 모든 주제는 반대주제로 이끌어져야 한다. 그러나 한 쪽도 다른 쪽도 모두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과학산책

감정은 어디서 느끼나

우리는 은연중에 기쁨이나 슬픔을 온몸으로 느낀다는 표현을 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감정은 뇌에서만 느끼는 것이지 손가락이나 무릎과 같은 곳에서 기쁨이나 슬픔을 느낀다는 생각은 편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

그러나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인드라의 거울처럼 전체가 부패하고 들어있고 부분이 전체에 들어있는 모습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깥 세상의 반영, 몸밖의 우주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몸 전체 속에 신체와 각 부분이 들어있고 신체의 각 부분 속에도 전체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것은 관계로 서로 얽혀있으니, 우리 몸의 각 부분들 사이, 각 부분과 몸 전체는 서로 서로 얽혀져 전체가 같이 (단어의 정의 그대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도 자연스럽다. 그럼 서양과학은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먼저 감정의 지각 과정부터 살펴보자.

고통과 쾌락 같은 지각은 자극의 전달을 통해 뇌에 의해 인지된다. 신경 자극은 신경전달물질이라고 알려진 화학적 심부름꾼에 의해 전달된다. 신경세포는 자극

이 도착하면 일련의 신경전달물질을 만들고 이를 방출한다. 신경전달물질 분자들은 한 신경세포의 끝에서부터 발생해 다른 신경세포에 있는 특별한 수용체와 결합한다. 이런 식으로 화학 정보가 전달된다.

신경세포는 호르몬에 의한 정보 전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세포막의 일부가 뿔처럼 나와 신경섬유를 형성했다. 신경세포에서 방출되는 호르몬은 신경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일반 호르몬과 구별하여 신경전달물질이라 부른다. 뇌를 만드는 신경세포도 이와 같은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즉, 뇌를 만드는 신경세포는 몸 속의 정보전달물질인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인 호르몬 분비세포에서 진화되었으며 신경섬유를 만들어 정보 전달을 신속, 정확하게 해주는 세포이다. 뇌의 활동은 뇌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의 활동에 의해 결정되며 신경세포의 활동은 신경세포 사이를 화학적으로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의 양에 의존한다.

신경전달물질을 포함하여 몸 속의 정보를 전달하는 호르몬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좋은 물질인 펩티드(peptide)라고 불리

는 소형단백질이 있는데 호르몬의 일종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뇌가 감정을 인식하는 과정에는 신경전달물질 혹은 신경펩티

슬픔·기쁨·성냄같은 감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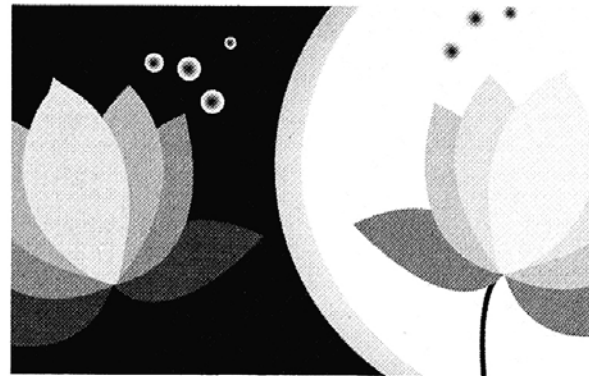
뇌뿐만 아니라 온몸서 느껴

백혈구속 뇌수용체가 전달

'부분=전체' 우리몸 화염병예

드라는 화학물과 특정 신경펩티드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필연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자들은 뇌에서만 인식작용이 일어나므로 이들 화학물과 수용체가 뇌에서만 발견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바뀌어야만 했다. 정신건강 국립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의 연구자들은 뇌 이외의 장소에서 뇌 안에서의 양만큼이나 풍부한 신경펩티드 수용체를 발견



하게 된다. 또한 1980년대 초반부터 면역 시스템 안의 백혈구라 불리는 세포에서도 신경펩티드 수용체를 발견되기 시작했다. 혈액 속의 백혈구 안에 '뇌' 수용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뇌 세포에서는 신경펩티드가 만들어지고 이 신경펩티드를 수용하는 면역세포는 또한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게 된다. 면역세포가 가지고 있는 수용체 덕분에 면역세포는 신경세포가 구사하는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 신경계를 따라 고정되어 있는 신경세포와는 달리 면역세포들은 혈관을 따라 신체 어디로든 이동하면서 모든 세포들을 만날 수 있다. 따라서 면역세포는 뇌의 느낌(화학물질)을 다른 세포에 전달하는 일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뇌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신경펩티드와 수용체가 다른 기관, 즉, 위, 콩팥, 대장, 심장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이 뇌에서 발견되는 것과 똑같은 신경 펩티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면 당시의 공평도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 활동'을 담당한다고 여기는 뇌에서만 아니라 '발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기는 면역세포에서도, 혹은 콩팥, 위장 등에서도 느낌을 전달하는 화학물질이 생산된다는 것은 실용적으로 증명되었다. 우리의 몸은 각자 자신의 기능을 하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온몸으로 같이 느끼는, 자유로운 나뭇잎을 보여준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보덕선원

하안거 선방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여기 서울에 초현대식으로 육백평 큰 시설과 조용하고 공기 좋은 남향집 선원입니다. 저는 40년간 제방에서 정진하다가 수도의 기본인 원운산림선방으로 원을 세우고 창건했습니다.

저는 대중과 같이 정진하고 탐마하고 영원한 수도장으로 느낌이 오는 분위기로 상좌가 아닌 수도인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인연을 논하지 말고 오십시오. 같이 정진합니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824-1호
T. 02)914-4235

삼각산 보덕선원
원장 오본 합장

大道真人 유불선 일체 육신 (육경신) 도통 정진대법회

선천도수 감하시대와 증감시대가 교체되어 15진 주 사만다, 사성제, 사구계를 통설, 지계수복자리 도개비를 깨우고 사순과 사역을 통설, 구천을 평정하는 계론, 시론, 생천론, 예단경 大道心力通天안통, 타심통, 천리통, 신축통, 속명통, 루진통의 경지를 얻어 도인, 선인, 진인 출현미묘법으로 유불선 일체종교를 포용하여 생애의 죄업과 영생의 방법과 지옥의 영가해탈법을 얻는 정진대법회와 발법증생 제도하는 미륵,증상운도의 고집진도 존경할 일 만함위인 근본으로 천복과 천인이 교체되는 낮 정오에 태양과 직접 33초의 광도를 넘어 99초만에 천안통을 즉시 시험하여 삼생의 업연이 소멸되는 과정을 지도하며 옛 선조인들의 전통적인 연성법인 (원) (가) (망) 해인도법은 대은하게 환웅천제님께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날이고로 저승명단에서 제외되며 흥미해진 정신 집신에 도달하는 신병과 신술과물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못하는 비밀장므로 呂弓乙 이재기처 사담칠두라, 석정관 우복동 어차장구의 근본인 육자대명 왕진언과 존제진으로 鬼를 부릴 불 환우를 미륵상생의 본 뜻을 깨달아 수준높은 도를 통하여 도인들의 저변에 자질향상과 마음비우는 도를 통하시기 바랍니다.

- 입제 : 5월 7일亥시, 5월 8일亥시 해제
- 회비 : 1박2일, 침식, 일체포함, 일금 5만원
- 장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 전화 : 02)821-6622/923-3110/016)239-3110 (구보자원고개 하차, 삼성APT앞)

도선에성공 일류종교 국조원 육신도통 회장 태일대사 합장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생활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초벌용(8Cm, 10Cm) ◆초벌용위에 연일용 불인 상태 ◆연동완성품 문의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관공회의 고풍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복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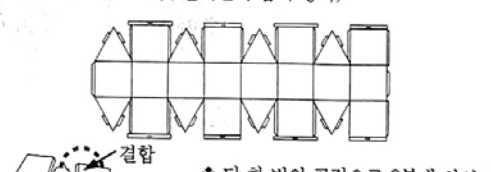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곧잘 및 인쇄제지 합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